

제약기업 비만치료제 개발 열기

LGCI-동아제약에 바이오벤처까지 ... 국내시장 600억원 이상

제니칼, 리덕틸, 엑소리제 등 외국의 비만치료제와 비만치료보조제들이 국내에서 선풍적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벤처기업과 제약기업들의 비만치료제 개발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제약업체에 따르면,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벤처기업인 크리스탈지노믹스는 인간게놈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는 유전자 기능분석을 통해 비만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비만 치료효과와 관련한 다수의 단백질 구조를 밝혀냈으며 현재 신약물질 발굴을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LGCI는 일본 제약기업 아마노우찌와 제휴를 맺고 뇌에서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함으로써 음식물 섭취를 억제하는 형태의 경구용 비만치료물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안으로 후보물질 발굴을 완료할 계획이다.

동아제약과 바이오벤처 TG바이오텍도 비만치료제 개발에 공동으로 나서고 있다. 경북대 허태린 교수가 창업한 TG바이오텍은 최근 비만 관련 유전자를 이용해 지방 축적을 막는 비만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 동아제약에 특허 실시권을 이전했다. 동아제약은 현재 TG바이오텍이 찾아낸 유전자 정보를 통해 신약선도물질을 탐색하고 있으며 조만간 동물실험에 들어갈 계획이다.

싸이제닉은 최근 생명공학연구원 김영국 박사팀이 인삼에서 추출한 비만치료물질(파낙시논 A)에 대한 기술을 이전받아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한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바이오오비서티는 최근 나뭇잎과 열매 등 천연물에서 추출한 성분을 배합해 비만 치료효과를 보이는 물질 개발에 성공했으며, 한의학연구원과 바이오랩기술연구소는 지방과 탄수화물의 흡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다이어트 제품의 개발을 마쳤다.

비만치료제 시장은 신약이 등장할수록 시장이 커지는 특징을 갖고 있어 앞으로 바이오기업들의 신규진출이 잇따르고,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비만치료제 분야에서 세계적인 신약을 발굴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2001년 2월 시판에 들어간 한국로슈의 비만치료제 제니칼은 2002년 들어 매출증가가 둔화되기는 했으나 2001년 400억원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릴 전망이다.

제니칼은 2001년 가수요까지 발생하면서 의약품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었다. 로슈는 제니칼이 비만 뿐만 아니라 당뇨병 및 고지혈증 치료에도 효과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에보트의 비만치료제 리덕틸도 2001년 말 시판이후 호조를 지속하면서 2002년 상반기에 6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에보트는 2002년 리덕틸 매출이 120억원을 웃돌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보트는 리덕틸이 체중감량효과가 빠르고 하루 한번 복용하면 돼 인기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업체는 비만치료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잇단 신제품 시판으로 앞으로 국내시장이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6/10>